

대행 스님

모든 걸 감사하게 근본 자리에 놓고 삽시다

지난 호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이 마음공부를 하는 것도 수억겁 생을 거쳐 오면서 인연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만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의 밑을 씻어 줘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위에 앉아서 좋은 거를 받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밑을 씻어 줘야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렇게 하심하고 그렇게 정돈하고 그렇게 대치해 나갈 수 있는 둥근 어버이라면 이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할 겁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마음공부를 해서 차원이 높아지면 누가 알아주느냐 이러겠지만 벌써 바깥으로 빛이 비쳐 나옵니다. 그러니 빛이 비쳐 나오는 것은 일체 보살들이 다 옹호하고 있죠. 일체 부처님의 마음이 직결돼 있죠. 일체 만물만생들이 다 옹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디다 세워 놓은들 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못 먹고 굶주리고 이런다고 해서 나의 자부처를 탁탁 털어내 버리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남을 못살게 해서 지금 못사는 거니까 그 뜻을 아시고, '그렇게 못살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못살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으니까, 내 탓이니까 수행해서 이걸 다 없애리라.' 하고선 모든 걸 거기다 놓기만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거기다 놓기만 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조금도 에누리가 없거니와 조금도 허탕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말을 하죠. 거기다 놓고 진짜로 믿는다면 거기서 보디가드도 돼 줄 수 있고 해결사도 돼 줄 수 있다구요. 해결사가 돼 준다고 그래서 잔뜩 잘못해 놓은 거를 금세 없애 주는 것이 해결사가 아닙니다. 그런 거를 다 녹이고 끈기 있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는 그런 위치에서 얘깁니다. 내가 대충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내가 한 게 없이 부처님께서 하신 거니까. 잘못한 거는 중생이 한 거고, 잘한 거는 자기 부처가 한 거니까, 허허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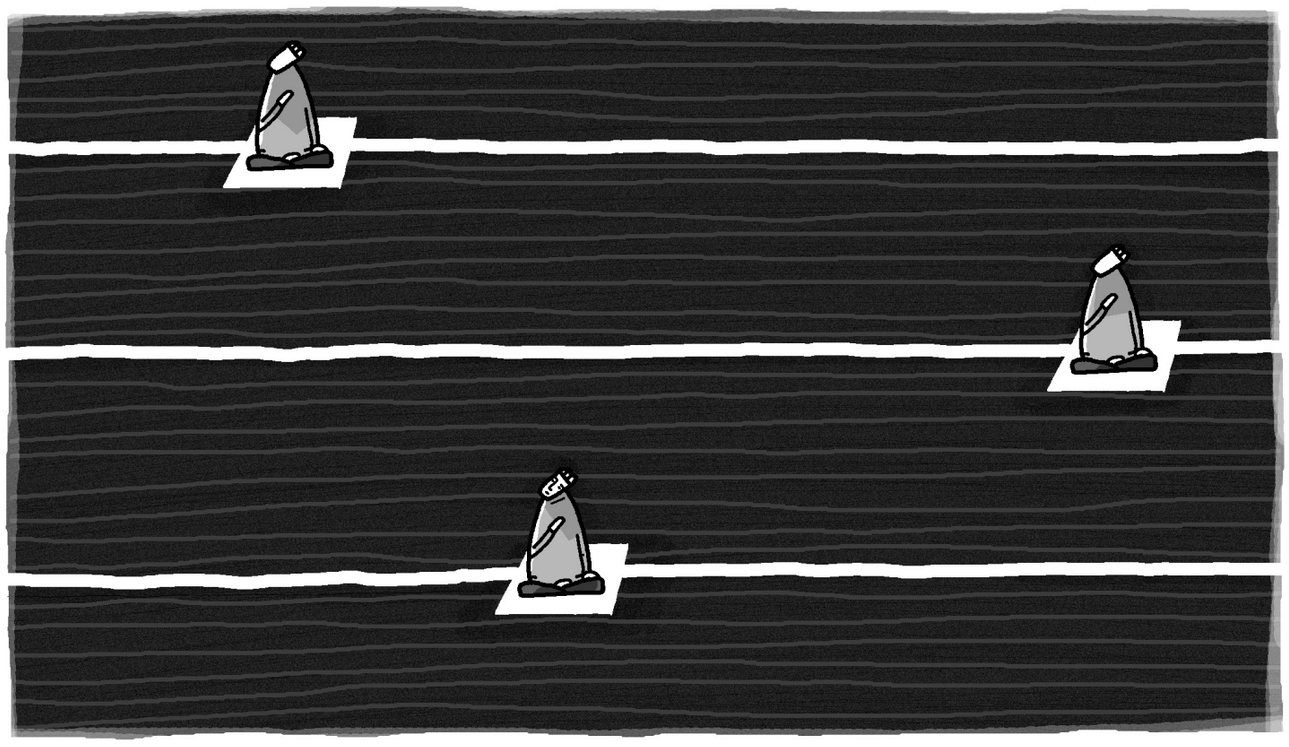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우리가 살면서 더불어 함께 도반으로서 모든 것을 이렇게 배우고 나간다면 요다음 생에 어떠한 차원에서 나오셔도 지금 여러분이 낳아 놓으신 그 자식들도 염주 알 꿰지듯 따라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잘못해도 같이 따라 들어가고 잘해도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잘못하니까 아들이 잘못되듯이. 지금도 잘 보시죠? 허허허. 또 아버지가 잘하니까 자식도 잘하듯이, 이게 아주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생이 따로 있고 현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얼마 안 가서 내생이 되고 현생이 됩니다. 그러니 아주 그냥 요거리가 멀지 않죠.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도 변치 않게 그 주인공에다 모든 걸 몰아서 한도량에 한마음으로 넣고, 제불과 한 마음이 돼서 우리가 결산을 본다면 크게 이룰 겁니다, 아마. 허공에 꽃이 피어서 그냥 비 내리듯 말입니다. 그럼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자1(남) 예, 감사합니다. 심종회 회원입니다. 우선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크게 히트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하는 노래인데, 저도 큰스님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큰스님 그것도 마음이에요. 작아지는 게 뭐 있고 커지는 게 뭐 있습니까? 마음은 체가 없어서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커진다고 생각도 말고 작아진다고 생각도 말고 그냥 떳떳하게, 그냥 여여하게 자유스럽게 생각하세요.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이 이야기가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육조 혜능 대사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무름이 없이 마음을 내라' 하는 구절에서 크게 깨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이해를 할 수 있을는지, 아니면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해서 그것을 이해를 못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 체험담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느 날 차를 운전하고 어디를 가는 도중에 운전석 앞에 있는 거울을 보게 되었는데, 거울에 비치는 제 모습이 대단히 시무룩하고 무표정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주인공에게 맡겨 두는 상태를, 그러니까 아무 마음도 안 내고 그냥 바라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시무룩해서 '그러지 말고 한번 생기 있게 해 봐.' 그런 생각을 내니까 얼굴이 조금 밝아지고 눈동자가 초롱초롱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웃어 봐라.' 했더니 그냥 또 웃는 모습이 나타나더군요. 그런데 그것이 말하자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인가 여쭙습니다.

큰스님 맞아요, 맞아요.

질문자1(남)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 더 큰 어떤 것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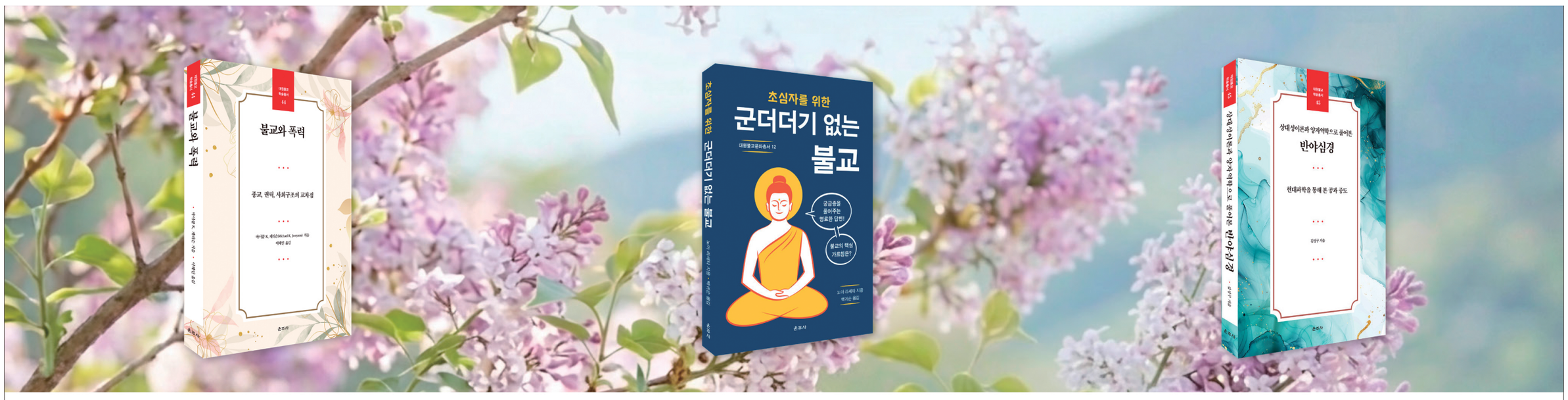
큰스님 큰 거든 작은 거든 상관이 없어요. 육조 스님이 또 "어찌 내 불성이 있는 줄 알았으리까. 어찌 내 불성이 있어서 내 불성이 그냥 여여한 줄 알았으리까." 하셨죠. 이 자체가 바로 당신이 '웃어 봐라.' 그러니까 웃고 '시무룩한 거 좀 걷히게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걷히게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걷히게 하란 놈도 그놈이요, 또 걷혀서 웃은 놈도 그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자유스럽습니까. 그 자유스러운 곳에서 그렇게 자유스럽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게 아니라 아주 같아요.

질문자1(남)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무릎을 꿇고 여쭈어야 되겠습니다.

큰스님 어이, 괜찮습니다. 뭐 꿇으나 드러누우나 뭐…. (대중 웃음)

질문자1(남) 저는 이 한마음선원에 온 지가 여러 해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책을 읽어 보고 '스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시는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 번 설법을 듣는 동안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것도 거기에서 나오니 거기에 맡겨 놓으세요. 그것도 거기서 하도록 하세요. 놔 놓고 바라보세요.'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들을 때에도 이해는 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한 1년 정

☞ 20면으로 계속



불교는 과연 비폭력의 종교인가?

불교와 폭력

불교가 역사적으로 전쟁과 고문, 성차별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어떻게 공생해 왔는지를 방대한 자료와 현장 연구를 통해 입증하고 있는 정교한 학술적 시도!

마이클 K. 제리슨 지음, 이혜인 옮김/신국판/376쪽/값 24,000원

불교란 무엇인가?

초심자를 위한 군더더기 없는 불교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복잡한 교리 대신 명료한 설명과 실제적인 예시로 불교의 핵심을 안내하는, 불교를 처음 만나는 이들을 위한 입문서이자 실천서!

노아 라셰타 지음, 백귀순 옮김/국판변형/184쪽/값 15,000원

현대과학을 통해 본 공과 중도!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으로 풀어본 반야심경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을 통해 '공'과 '중도'라는 불교의 핵심 진리를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통해 『반야심경』의 참뜻을 현대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김성구 지음/신국판/328쪽/값 24,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